

대학생의 음식물소비행동과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서정희 · 홍순명

아동가정복지전공 · 식품영양전공

<요 약>

이 논문은 IMF 경제위기 직후에 울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식물 섭취빈도를 조사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불안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학생들은 채소, 곡류 및 과일류를 섭취하는 빈도가 다른 음식물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불안 변수들이 음식물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가격이 비싼 음식물은 경제적 불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음식물군별 섭취빈도간의 상관관계도 주류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군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관관계의 크기는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University students' food consumption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In Ulsan Area

Seo, Jeonghee · Hong, Soonmyung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 Dept. of Food and Nutrition

<Abstract>

This paper surveyed the food consumption behavior and related variables. Data were collected from university students of Ulsan Area. University students' most frequent intake food was vegetables, grains, fruits and beverag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economic distress variables exerted different effects on food consumption behavior.

Food groups that were expensive were affected by economic distress variables. The correlations of inter food group were positive, except alcohols.

I. 서론

음식물 섭취패턴이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매일 소비하는 음식물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음식물소비패턴을 국제화시키게 되었고, 건강문제의 양상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만성질환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면서 만성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식사요인이 대두되게 되었다. 즉 식사의 질이 중요하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식습관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백희영·문현경·최영선·안윤옥·이홍규·이승옥, 1997). 특히 대학생시기는 생애주기측면에서 볼 때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성인기에 형성될 식습관에 많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소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대학식당의 메뉴를 분석한 연구(송윤주·박정숙·백희영·이연숙, 1999), 도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패스트푸드 이용실태를 분석한 연구(심경희와 김성애, 1993), 서울 지역 대학생의 외식실태와 기호도를 조사한 연구(노정미와 유영상 I,II, 1989), 대학생의 음식기호를 조사한 연구(정영진, 1984), 대학생의 점심섭취실태를 조사한 연구(유영상, 1981), 여대생의 음식선택과 기호에 관한 연구(이명희와 문수재, 1983; 임현숙, 1980), 양산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행동을 조사한 연구(신애숙과 우문호, 1999) 등이 있다.

음식물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가계의 경제적 수준의 지표가 된다는 앵겔의 주장이래로 가계경제학분야에서는 소비패턴연구에서 음식물소비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가계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음식물소비에 들어간 비용만을 조사함으로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식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어떠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선진국에서의 가계복지정책에는 초창기에는 필요한 음식물을 배급하였으나, 개인의 선호가 무시되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소비자들의 음식물선호와 실제 섭취패턴을 조사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음식물소비는 개별 소비자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득보다 가계의 경제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제적 불안(Voydanoff, 1984; 1990; Voydanoff, Donnelly 및 Fine, 1988; Voydanoff와 Donnelly, 1987; 황덕순, 1995)과 음식물 소비빈도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대학생들은 경제적 불안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으므로(서정희와 염수경, 1998), 경제적 불안이 대학생들의 음식물소비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불안변수와 소득관련변수 중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연구결과는 가계복지정책, 외식산업과 식품마케팅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IMF 경제위기 직후에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주관적 경기전망이 극도로 비관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소비자들의 주관적 경기전망이 실제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가

지 상반된 주장이 있다(Taylor, 1974). 하나는 전통경제이론으로 소비자들은 인플레이 기대하에서 현금의 구매력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실물로 대체하려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늘리고 저축을 줄인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Katona(1960)의 주장으로 인플레이가 소비자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구매를 연기하고 저축을 늘린다는 것이다. Juster와 wachtel(1972)도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는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비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1990년대에 서울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기옥·이승신, 1990)에 의하면 주관적 경기 전망은 총소비지출은 감소시키지 않으나, 지출비목에 따라 지출액을 늘이거나 줄임으로써 소비지출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IMF 경제위기는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더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음식물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울산지역의 대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음식물소비빈도를 조사하고, 이들 대학생들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을 12개군으로 묶어,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불안변수들을 알아보고, 12개 음식물소비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음식물소비패턴의 경향을 통하여 식량정책, 가계복지정책, 외식산업지도, 영양교육 및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가계의 소비행동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물소비를 통하여 소비자행동에 관한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이 논문은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성별, 학년, 전공 계열의 분포를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3월 23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를 제외하고 544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이 논문의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경제적 불안과 음식물소비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소비빈도

대학생들의 음식물소비행동패턴을 조사하기 위하여 육류 6, 콩류 3, 생선류, 6, 해조류 2, 곡류 7, 채소류 6, 과일 8, 찌개류 4, 인스턴트 음식 6, 음료 5, 주류 4, 패스트푸드 음식점 7을 조사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조사대상 항목에 대하여 '안 먹음 1점', '1년 3-4회 2점', '월 1회 3점', '월 2-3회 4점', '주 1-2회 5점', '주 3-4회 6점', '매일' 7점을 부여하였다. 조사대상 음식물을 쇠고기류, 기타 육류, 콩류, 생선류, 해조류, 곡류, 채소류, 과일류, 인스턴트 음식, 음료, 주류, 패스트푸드로 묶었다.

2) 경제적 불안

경제적 불안 척도는 황덕순(199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물가불안 3문항, 소득불안 4문항, 고용불안 3문항, 재정불안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상대적 박탈불안은 별도로 측정하였다. 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0점부터 4점까지 부여하였고, 재정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였다.

상대적 박탈불안은 Andrews와 Withey(1976)의 사다리척도를 0-10점으로 바꾸어 만든 생활수준 사다리에서 현재 자신의 형제자매, 이웃, 친구, 우리사회 일반의 생활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합산한 다음, 자신의 생활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4를 곱한 후 그 차를 구하였다. 그 차가 0이면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잘산다고 여기는 것이 되고, 0보다 클수록 상대적으로 못산다고 여기는 것이 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53.06%로 남학생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은 25세 이상이 34.77%로 가장 많았고 23-24세가 24.55%, 22세가 21.41%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6.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교로 31.32%를 차지하였고 기독교는 22.12%를 차지하였다.

주거상태는 자택이 69.41%, 하숙과 자취 등을 포함하는 기타가 30.59%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1.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졸이하로 30.08%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46.56%로 가장 많았고, 중졸은 32.61%, 국졸이하도 20.83%를 차지하였다.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은 관계로 다른 도시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39.37%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은 20.63%, 생산직은 21.05%를 차지하였다. 어머니는 취업을 한 경우가 36.54%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33.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0만원 미만으로 25.93%, 120-150만원이 19.45%로 가장 적었다.

한달 용돈의 크기는 10-20만원이 48.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30만원으로 26.77%를 차지하였다. 소득유입시기의 불규칙성을 보면 '항상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가 37.90%로 가장 많았고,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가 33.33%,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가 28.77%를 차지함으로써 2/3 정도는 소득유입시기가 규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을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가 65.35%로 가장 많았고, '항상 틀리다'도 21.39%나 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
성별	남	238	46.94
	여	269	53.06
연령	21세 이하	98	19.25
	22세	109	21.41
	23-24세	125	24.56
	25세 이상	177	34.77
종교	무교	232	46.57
	불교	162	31.32
	기독교	111	22.12
주거상태	자택	354	69.41
	기타	156	30.59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51	30.08
	고졸	258	51.39
	대졸이상	93	18.53
어머니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106	20.83
	중졸	166	32.61
	고졸이상	237	46.56
아버지의 직업	전문 관리직	98	20.63
	판매 서비스직	90	18.95
	생산직	100	21.05
	사무직	187	39.37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186	36.54
	비취업	323	63.46
월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	132	25.93
	120-150만원 미만	99	19.45
	150-200만원 미만	110	21.61
	200만원 이상	168	33.01
한 달 용돈의 크기	10만원 미만	55	10.83
	10-20만원 미만	246	48.43
	20-30만원 미만	136	26.77
	30만원 이상	71	13.98
소득유입 시기의 불규칙성	항상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	191	37.90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	145	28.77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	168	33.33
소득유입 액수의 불규칙성	매달 소득이 같다	67	13.27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330	65.35
	항상 틀리다	108	21.39

* 결측값으로 인하여 빈도 차이가 있음

2. 음식물군별 소비빈도

<표 2>에서 울산지역 대학생들의 음식물 소비빈도를 보면 채소류는 6가지 음식물을 모두 포함한 평균값은 28.6, 포함된 6가지 음식으로 나눈 평균값은 4.8로 두 가지로 계산한 평균값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장 여러 번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군으로 나타났

다. 즉 울산지역의 대학생들은 채소류를 평균 월 2-3회 이상 주 1-2회 이하로 먹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곡류는 7가지 음식물이 포함되었는데, 전체 평균값은 두 번째로 크나, 7가지 음식물로 나눈 평균값은 네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중에서 쌀밥의 경우는 섭취빈도가 많으나, 다른 곡류는 섭취빈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곡류에 포함된 음식물섭취빈도를 보다 자세하게 보면 쌀밥은 6.24로 거의 매일 먹는 수준이다. 잡곡밥과 빵은 각각 4.09와 4.20으로 월 2-3회 이상 주 1-2회 이하로 먹는 수준이고, 국수와 감자는 각각 3.85, 3.60으로 월 1회 이상 월 2-3회 이하로 먹는 수준이다. 떡과 고구마는 각각 2.65와 2.74로 년 3-4회 이상 월 1회 이하로 먹는 수준이다. 콩류, 해조류 및 음료 등은 포함된 음식물의 수로 나눈 평균값이 4.5로 두 번째로 크나, 포함된 음식물의 수가 콩류는 3개, 해조류는 2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섭취빈도는 많다고 볼 수는 없다. 과일류는 전체 평균과 포함된 음식물의 수로 나눈 평균이 세번째를 차지하였다. 콩류, 해조류, 음료 및 과일류는 월 2-3회 이상 주 1-2회 이하로 먹는 수준이다.

<표 2> 음식물군별 소비빈도의 평균

음식종류	음식물 수	평균	평균 ¹⁾
쇠고기류	2	6.4	3.2
기타 육류	5	19.5	3.9
콩류	3	13.4	4.5
생선류	7	19.5	2.8
해조류	2	9.0	4.5
곡류	7	27.3	3.9
채소류	6	28.6	4.8
과일류	6	25.7	4.3
인스턴트 음식	6	17.5	2.9
음료	5	22.6	4.5
주류	4	9.8	2.5
패스트푸드	6	12.9	2.2

¹⁾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음식물의 수로 나눈 값

대학생들은 쇠고기류 보다는 기타육류를 더 자주 먹고 있는데, 두 종류의 음식 모두 월 1회 이상 월 2-3회 이하로 먹고 있는 수준이다. 육류 음식의 섭취빈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논문의 조사시점이 IMF 경제위기 직후이기 때문에 경제사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생선류, 인스턴트음식, 주류와 패스트푸드점은 년 3-4회 이상 월 1회 이하로 먹고 있는 수준이다. 인스턴트음식의 경우 라면은 평균이 4.93으로 월 2-3회 이상 주 1-2회 이하로 먹는 수준으로 다른 인스턴트음식에 비하여 섭취빈도가 많은 편이다. 주류는 소주와 맥주는 월 1회 이상 월 2-3회 이하로 먹는 수준으로 안 먹거나 년 3-4회 이하로 먹는 수준인 양주와 막걸리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은 종류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3일간 식이섭취조사를 실시 한 결과

(황선희·김정인·송정자, 1996) 섭취빈도가 높은 30가지 식품은 백미, 고춧가루, 대파, 양파, 커피가루, 마늘, 오이, 당근, 조선투, 고추장, 콩나물, 풋고추, 깍두기, 밀가루, 깨소금, 된장, 단무지, 라면, 양배추, 애호박, 마른 김, 상치, 두부, 참깨, 깻잎, 열무, 부추 및 건미역 순이라는 연구결과와 순서는 다르나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쇠고기류와 기타육류 섭취빈도의 관련변수

쇠고기류의 섭취빈도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대적 박탈불안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만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고, 소득불안, 연령, 물가불안,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경제적 지위, 고용불안, 주거상태, 한달 용돈의 크기, 재정불안 및 성별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상대적 박탈불안을 적게 느끼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쇠고기음식을 섭취하는 빈도가 높았다. 상대적 박탈불안이 아버지의 교육수준보다 쇠고기류의 섭취빈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 변수들은 쇠고기류 섭취빈도 분산의 14.5%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상대적 박탈불안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쇠고기 이외의 기타육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에 따라서만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고, 상대적 박탈불안, 아버지의 교육수준, 소득불안, 연령, 물가불안,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경제적 지위, 고용불안, 주거상태, 한달 용돈의 크기, 재정불안 및 성별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이가 많은 대학생일수록 쇠고기 이외의 육류의 섭취빈도가 적었다. 이들 변수들은 쇠고기 이외의 기타 육류섭취빈도 분산의 8.6%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연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육류의 섭취량이 남자보다 여자가 의미있게 높다는 40대와 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효지와 심정수(1999)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또한 육류의 섭취빈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으나,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는 윤계순과 우자원(1999)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4. 콩류 섭취빈도의 관련변수

콩류의 섭취빈도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상태에 따라서만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고, 상대적 박탈불안, 아버지의 교육수준, 소득불안, 연령, 물가불안,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경제적 지위, 고용불안, 주거상태, 한달 용돈의 크기, 재정불안 및 성별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은 콩류섭취빈도 분산의 8.7%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주거상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보다 콩류를 섭취하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생선류 섭취빈도의 관련변수

생선류의 섭취빈도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주거상태에 따라서만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고, 상대적 박탈불안, 소득불안, 연

령, 물가불안,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경제적 지위, 고용불안, 주거상태, 한달 용돈의 크기, 재정불안 및 성별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은 생선류 섭취 빈도 분산의 13.7%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주거상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보다 생선류를 섭취하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선음식을 섭취하는 빈도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선류의 섭취량이 남자보다 여자가 의미있게 높다는 40대와 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효지와 심정수(1999)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6. 해조류 섭취빈도의 관련변수

해조류의 섭취빈도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거상태에 따라서만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고, 상대적 박탈불안, 아버지의 교육수준, 소득불안, 연령, 물가불안,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경제적 지위, 고용불안, 주거상태, 한달 용돈의 크기, 재정불안 및 성별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은 해조류 섭취 빈도 분산의 7.2%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주거상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보다 해조류를 섭취하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곡류 섭취빈도의 관련변수

곡류의 섭취빈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곡류섭취 빈도 분산의 1.0%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결과는 40대와 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곡류를 더 많이 섭취한다는 이효지와 심정수(1999)의 연구, 여자가 남자보다 당질식품의 선호도가 높다는 장남이와 정혜경(1992)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8. 채소류와 과일류 섭취빈도의 관련변수

채소류의 섭취빈도는 생선류의 섭취빈도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과 주거상태에 따라서만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고, 상대적 박탈불안, 아버지의 교육수준, 소득불안, 연령, 물가불안,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 경제적 지위, 고용불안, 주거상태, 한달 용돈의 크기, 재정불안 및 성별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연령이 주거상태보다 채소류의 섭취빈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채소류섭취 빈도 분산의 10.2%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연령과 주거상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대학생일수록 채소류를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보다 채소류를 섭취하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40대와 50대 성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한다는 이효지와 심정수(1999)의 연구결과와 달랐다.

<표 3> 음식물 소비빈도에 관한 회귀분석

	쇠고기류	기타육류	콩 류	생선류	해조류	곡 류
상대적 박탈불안	-.179**	-.107	-.045	-.112	6.8923E-03	-.028
소득불안	.028	.051	.021	-.010	.030	.055
연령	-.012	-.157*	-.090	-.092	-.024	-.125
물가불안	-5.812E-03	-.011	-9.044E-03	.077	.069	-.032
아버지의 교육수준	.144**	.041	-.010	.140**	.085	5.4029E-03
소득 유입액수의 불규칙성	-.083	-.074	-.067	-2.401E-03	-.066	-.116
경제적 지위	.069	2.3250E-03	-9.697E-03	.013	3.7328E-03	.082
고용불안	-.092	-.046	-.058	-.086	-.036	-.098
주거상태	3.0913E-03	-.022	-.212***	-.152**	-.175**	-.118
한달 용돈의 크기	.018	.098	.012	.087	1.3961E-03	.029
재정불안	-.067	-.069	.081	-.057	-.075	-.032
성별	.025	-.112	.012	2.2081E-03	.017	.026
상수	5.631	25.636	16.914	21.395	8.459	35.074
R ²	.145	.086	.087	.137	.072	.100
수정R ²	.119	.058	.059	.109	.043	.072

계속)

	채소류	과일류	인스턴트	음 료	주 류	패스트푸드점
상대적 박탈불안	-.078	-.144**	-.078	-.062	-.067	-.150**
소득불안	.025	7.4018E-03	.032	.046	-.029	1.0594E-03
연령	-.186**	-.180**	-.170*	-2.363E-04	-.082	-.081
물가불안	.031	2.5703E-03	.034	.024	-.054	-.029
아버지의 교육수준	-.036	.108*	.078	.026	-.013	.095*
소득 유입액수의 불규칙성	-.075	-.085	-.083	-.110*	-4.790E-03	-.031
경제적 지위	.062	.028	-.029	.040	.011	.034
고용불안	-.042	-.113*	-.064	-.015	-.044	-.041
주거상태	-.144**	-.166***	.131*	.046	.122*	-.066
한달 용돈의 크기	4.1091E-03	.133**	.068	.189***	.194***	.189***
재정불안	-.035	-.050	.033	-.022	.067	-.034
성별	-.024	.053	-.194**	1.2689E-03	-.253***	.230***
상수	38.788	39.089	24.268	17.223	13.774	13.753
R ²	.102	.246	.089	.085	.144	.209
수정R ²	.075	.223	.061	.056	.117	.185

* P<.05 **P<.01 ***P<.001

과일류의 섭취빈도는 주거상태에 따라서는 P<.001 수준에서, 상대적 박탈불안, 연령, 한 달 용돈의 크기에 따라서는 P<.01 수준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고용불안에 따라서는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연령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주거상태, 상대적 박탈불안, 한달 용돈의 크기, 고용불안, 아버지의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과일류섭취 빈도 분산의 24.6%를 설명

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상대적 박탈불안, 연령,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용불안, 주거상태 및 한달용돈의 크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불안을 많이 느끼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용불안을 많이 느낄수록, 한달 용돈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취나 하숙을 하는 대학생이 자기 집에서 사는 대학생보다 과일류의 섭취빈도가 작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40대와 50대 성인 남녀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는 이효지와 심정수(1999)의 연구와 여자가 과일을 더 선호한다는 강남이와 정혜경(1992)의 연구결과와 달랐다.

9. 인스턴트 음식 섭취빈도의 관련변수

인스턴트음식의 섭취빈도는 성별에 따라서는 $P < .01$ 수준에서, 연령과 주거상태에 따라서는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으나, 나머지 다른 변수들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성별이 가장 크고, 연령은 두 번째고, 주거상태는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인스턴트음식 섭취빈도 분산의 6.1%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성별, 연령 및 주거상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집에 사는 경우보다 하숙이나 기숙사에 사는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인스턴트음식을 섭취하는 빈도가 적었다.

10. 음료와 주류 섭취빈도의 관련변수

음료의 섭취빈도는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에 따라서는 $P < .05$ 수준에서, 한달 용돈의 크기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았으나, 나머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한달 용돈의 크기가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음료섭취빈도 분산의 5.6%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과 한달 용돈의 크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유입액수가 불규칙적일수록, 한달 용돈의 크기가 작을수록 음료를 섭취하는 빈도가 적었다.

주류섭취빈도는 주거상태에 따라서는 $P < .05$ 수준에서, 한달 용돈의 크기와 성별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았으나, 나머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는 의미있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성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한달 용돈의 크기이고, 주거상태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주류 섭취 빈도 분산의 11.7%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주거상태, 한달 용돈의 크기 및 성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숙사나 자취 및 하숙집에 기거하는 경우가 자기 집에 기거하는 경우보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많을수록 주류섭취빈도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주빈도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며,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높다는 신에숙과 우문호(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의 관련변수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는 한달 용돈의 크기와 성별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상대적 박탈불안에 따라서는 $P < .01$ 수준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성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한달 용돈의 크기, 상대적 박탈불안, 아버지의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 분산의 18.5%를 설명해 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상대적 박탈불안,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한달 용돈의 크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박탈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한달 용돈의 크기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패스트푸드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의 차이는 박모라, 김순희, 위성언(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12. 음식물군별 소비빈도간의 상관관계

쇠고기류 음식의 섭취빈도는 주류를 제외한 11개 음식물군과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의 크기를 보면 생선류와 과일류가 중간 정도로 다른 음식물군에 비하여 큰 편에 속하며, 음료와 인스턴트음식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 기타육류는 다른 음식군과 모두 의미있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콩류는 채소류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생선류, 해조류, 곡류, 과일류와과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인스턴트음식, 음료, 패스트푸드점과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주류와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생선류는 해조류, 곡류, 채소류, 과일류, 패스트푸드점과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음료와 주류와는 아주 낮은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해조류는 곡류, 채소류, 과일류와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인스턴트음식, 음료 및 패스트푸드점과는 아주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주류와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곡류는 채소류 및 과일류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인스턴트음식, 음료, 패스트푸드점과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주류와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채소류는 과일류와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인스턴트음식, 음료, 패스트푸드점과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주류와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과일류는 패스트푸드점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과일류, 인스턴트음식과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주류와는 아주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스턴트음식은 음료, 주류 및 패스트푸드와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음료는 주류와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패스트푸드점과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류는 패스트푸드점과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음식물군별 소비빈도간의 상관관계

	쇠고기류	기타육류	콩류	생선류	해조류	곡류	채소류	과일류	인스턴트	음료	주류	패스트푸드점
쇠고기류	1.00											
기타육류	.38***	1.00										
콩류	.22***	.35***	1.00									
생선류	.50***	.47***	.44***	1.00								
해조류	.30***	.37***	.45***	.43***	1.00							
곡류	.27***	.32***	.49***	.42***	.39***	1.00						
채소류	.29***	.36***	.63***	.48***	.48***	.53***	1.00					
과일류	.44***	.36***	.40***	.53***	.39***	.52***	.42***	1.00				
인스턴트	.14**	.38***	.20***	.28***	.13*	.37***	.20***	.34***	1.00			
음료	.10*	.25***	.20***	.18**	.13*	.30***	.25***	.28***	.42***	1.00		
주류	.07	.24***	.02	.14**	-.03	.16**	.03	.13*	.34***	.25***	1.00	
패스트푸드점	.32***	.30***	.27***	.42***	.19***	.34***	.25***	.54***	.37***	.40***	.23***	1.00

* P<.05 **P<.01 ***P<.001

IV.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IMF 경제위기 직후에 울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식물 섭취빈도를 조사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불안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학생들은 채소류, 곡류, 과일류 및 음료의 섭취빈도가 많았다. 곡류의 경우에는 쌀밥은 매일 먹으나, 그 밖의 곡류음식의 섭취빈도는 쌀밥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주류의 경우에도 소주와 맥주의 섭취빈도는 많으나, 막걸리와 양주의 섭취빈도는 적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적 불안 변수들이 음식물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가격이 비싼 음식물은 경제적 불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쇠고기류는 상대적 박탈불안을 적게 느끼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주 섭취하였고, 기타 육류는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콩류와 해조류는 자기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많이 섭취하고 있었고, 생선류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고 자기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채소류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고, 과일류는 상대적 박탈불안을 많이 느끼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용불안을 많이 느낄수록, 한달 용돈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취나 하숙을 하는 대학생이 자기 집에서 사는 대학생보다 섭취빈도가 작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 집에 사는 경우보다 하숙이나 기숙사에 사는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인스턴트음식을 섭취하는 빈도가 적었다. 소득유입액수가 불규칙적일수록, 한달 용돈

의 크기가 작을수록 음료를 섭취하는 빈도가 적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숙사나 자취 및 하숙집에 기거하는 경우가 자기 집에 기거하는 경우보다, 한달 용돈의 크기가 많을수록 주류섭취빈도가 많았다. 상대적 박탈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한달 용돈의 크기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패스트푸드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음식물군별 섭취빈도간의 상관관계도 주류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군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관관계의 크기는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계경제학 분야에서는 음식물을 하나의 비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논문의 연구결과 음식물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 불안이나 소득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쇠고기, 과일, 패스트푸드점 이용 등은 경제적 불안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과일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둘째,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보다 기숙사, 하숙집 및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은 콩류, 생선류, 해조류, 채소류, 과일류를 적게 섭취하는 반면 인스턴트음식과 주류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는 식습관으로 주로 아침을 거르고 있고, 수업기간 등으로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간단하게 스낵 등으로 식사를 대처하고, 대학생이 되어 갑자기 늘어난 음주와 흡연도 문제가 되며, 여학생의 경우 체중을 조절하기 위하여 아침을 거르고 있어서 열량, 칼슘과 철분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송운주, 박정숙, 백희영, 이연숙, 1999). 대학생의 식생활패턴은 건강과 직결될 뿐 아니라 성인기와 노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 특히 자기 집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양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학생생활연구소와 식품영양학과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음식점 마케팅에서는 대학생들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 섭취빈도의 상관관계가 높은 음식물을 함께 팔거나, 세트메뉴로 개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곡류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채소류와 과일류, 콩류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채소류, 쇠고기류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생선류를 묶을 수 있는 세트메뉴를 개발하거나, 한 음식점에서 팔거나 식단을 짤 때 고려하는 방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울산지역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연구, 음식물섭취빈도와 다른 식행동, 건강상태, 식습관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음식물의 가격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남이·정혜경(1992). 영양지식, 식품기호 그리고 식행동에 나타난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5권 1호, 33-40.
- 김기욱·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제 1권 2호, 15-31.

- 노정미·유영상(1989).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2호, 65-74.
- _____.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제 27권 4호, 51-58.
- 박모라·김순희·위성언(1999). 소도시의 패스트푸드점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김천과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권 2호, 139-146.
- 백희영·문현경·최영선·안윤옥·이홍규·이승욱(1997). 한국인의 식생활과 질병.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윤주·박정숙·백희영·이연숙(1999). 일부 서울지역 대학식당의 메뉴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 14 no. 1, 1-15.
- 신애숙·우문호(1999). 양산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14 no.2, 131-137.
- 심경희·김성애(1993). 도시 청소년들의 패스트 푸드의 이용실태 및 의식구조. 한국영양학회지 26권 6호, 804-811.
- 윤계순·우자원(1999). 한국인의 육류음식에 관한 의식구조 및 이용행동.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8권 1호, 246-256.
- 이효지·심정수(1999). 중년기 성인의 식습관과 영양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7권 4호, 17-27.
-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희·김정인·승정자(1996). 한국인 남자대학생의 주요 상용식품의 불용성 및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 분석. 한국영양학회지 29권 3호, 278-285.
- Andrews, F.M. & Withey, S.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Plenum Press. New York.
- Juster, T.F. & Wachtel, P.(1972). Inflation and the Consumer. I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eds. Okun, A.M. & Perry, G.L..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71-114.
- Katona, G.(1960). The Powerful Consumer. New York: McGraw- Hill.
- Taylor, L.D.(1974). Price expectation and households' demand for financial assets. Expectations in Economic Research vol.1, 258-339.
- Voydanoff, P.(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Policy issues. Journal of Family Issues. 5, 273-288.
- _____(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Nov.), 1099-1115.
- Voydanoff, P, Donnelly, B.W. & Fine, M.A.(1988). Economic distress, social integr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9, 545-564.
- Voydanoff, P, P, Donnelly, B.W.(1987).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